

신중년 ‘내가 아직 사회에 쓸모 있다니 기쁘다’

5060, 광주 동구 ‘빛고을 50+센터’서 인생 2막 설계 분주 메타버스 특강·정보 교류·일자리 매칭 등 취업 지원 메카로

“자식들은 성장해 모두 떠났고, 사회에선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 쓰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올해 광주에서 제 2의 인생에 성공한 전광수(67)씨의 말이다.

38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정년퇴직 전까지는 퇴직 후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하던 50대 광주 ‘빛고을 50+센터’의 ‘사회 안전 서비스 지킴이’ 채용 공고 보고 지원했다.

전씨는 센터에서 인권교육과 소양교육 등을 이수하고 광주 남구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방문상담을 할 때 혹은 모를 돌발상황에 대비해 동행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발 치안안전 사건을 방지하는 것이 전씨의 주 임무다.

전씨는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기쁘다”며 “날마다 자긍심과 뿌듯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웃어 보였다.

최근 광주지역에서 전씨와 같은 신중년(50-69세)들이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5060세대들이 은퇴 후 인생 후반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 광주 신중년 인구는 40만 7888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144만 1611명)의 28.3%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정부가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용정책 대상을 넓히기 위해 신중년이란 개념을 도입했다.

지자체에서도 이에 맞춰 고도의 기술력과 업무 숙련도·열정 또한 우수한 신중년들이 정년이라는 한계에 막혀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축적한 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하향 취업하고, 일하는 조건이 더

열악해지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 여러 기관·시설에서는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광주 동구 학동 ‘빛고을 50+센터’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광주지역 신중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취향과 필요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통해 인생 이모작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빛고을 50+센터’는 지난해 10월 26일 개소해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광주지역 1만 3000여명의 신중년이 방문해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센터에서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사이의 ‘갭 세대’들이 한데 모여 일상을 공유하고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성공사례는 전씨 뿐 아니다. 10여년을 여성단체에서 성폭력 상담원으로 일한 김정(여·59)씨는 센터를 통해 ‘양육코칭서비스 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씨는 산모부터 초등학교 5학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와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해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진단·상담하고 양육방법에 대해 코칭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김씨는 “엄마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올바른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다른 이들을 돕는데서 아직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처럼 센터를 방문한 중·장년층 방문객들은 ‘이미지메이킹’, ‘100세시대 트렌드’ 등 다양한 특강과 함께 ‘취업코칭서비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등 취업 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방문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교육은 ‘메타버스, 이렇게 타라’와 ‘IT교육’ 등이다.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려는 신중년의 요구는 많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이 적은 탓이다.



“빛고을 50+센터” 주최로 지난 12일 광주동구문화센터에서 열린 ‘제2회 장년 페스티벌’에 참석한 광주지역 신중년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정찬기 빛고을 50+센터장은 “내년에도 중·장년층이 인생 2막이란 경험의 기회를 갖고 활기차고

보람찬 삶의 여정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

물량제 근로자 집단 해고 현대삼호중 근로감독 촉구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가 ‘물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작업거부를 한 근로자들을 집단 해고해 갈등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9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선박 블라스팅(페인트가 칠할 때 잘 도포되도록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근로자들은 “물량제라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돼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며 원청인 현대삼호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12일부터 물량제 폐지와 4대 보험 보장을 요구하며 작업거부에 나섰다.

물량제는 작업면적당 단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가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하는 제도다.

지난 15일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사장들은 작업 거부 중인 노동자 40여명에겐 문자메시지로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물량제가 불법은 아니라는 검토를 마쳤다”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근로자들이 일터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

한빛원전 1호기 오늘 100% 가동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20일 전기가 100% 생산해내는 전출력에 도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원전 1호기가 지난 18일 발전을 재개했고, 20일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고 19일 밝혔다.

한빛원전 1호기는 제26차 계획예방정비기간인 지난 8월 28일부터 113일간 안전점검을 받았다. 계획예방정비는 18개월 주기로 실시되며 설비 점검과 개선 등을 수행한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원전연료 교체와 격납건물 내부철관 추적 검사 등을 통해 설비의 안정성을 높였다”며 “향후 발전소에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

2021년 11월부터 아르바이트로 식당 일을 시작한 60대 여성 A씨는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9000원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올해 최저시급이 9000원을 넘는다는 뉴스를 보고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지원센터)에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 있는 건지’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지원센터는 현재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인만큼 근로계약 중 시간당 임금 부분은 무효라고 안내했다.

기간제 노동자인 40대 여성 B씨도 18개월 동안 하루에 6시간 씩 주 4일 배달 일을 하고 지난해 130만원, 올해 1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의 급여가 적정한지 지원센터에 묻은 결과 주휴수당과 유급휴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는 159만원, 올해는 167만원이 받아야 할 최소 급여라고 설명을 들었다.

관심사를 보면 고용형태가 보인다

비정규직 ‘임금·기간제·근로계약·파견·4대 보험’

광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임금’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비정규직 1028명을 대상으로 1048회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보험’(11.7%), ‘휴가’(11.2%), ‘징계·해고’(7.7%), ‘근로시간’(6.4%) 순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분류하면 ‘일용직’과 ‘단시간제’의 경우 ‘임금’ 관련 상담이 각각 약 75%, 약

60%로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기간제’의 경우에는 ‘임금’ 분야에 대한 상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근로계약’과 ‘징계·해고’에 대한 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파견·용역·하청’ 근로자는 ‘4대보험’에 대한 상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찬호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 활동, 사업을 꾸준히 확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공로자회, 임원선출 결과 놓고 ‘내분’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지난 17일 진행된 임원 선출 결과를 두고 내분을 겪고 있다.

공로자회는 지난 17일 선거를 치러 정성국 신임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2명, 감사 2명, 이사 10명 등 임원단 15명을 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공로자회 현 회장인 임중수 회장은 “정관을 위반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선거”고 반발 목소리를 냈다.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공로자회는 지난 11월 14일 정관을 개정하고 재판부로부터 “다음 총회 때 주인을 받으라”는 조정문을 받았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대의원 60명을 선출했다.

다만 ‘정관 개정 추진’ 안전을 올린 지난 17일 총회에서는 대의원 60명과 임원 등 총원 80명중 48명만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회장은 임원 선출 과정에서 재적 인원이 정족수인 3분의 2에 미달했으므로 추인을 할 수 없으며, 임원 선출 결과 또한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정 회장은 “법적인 하자 없이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그대로 시행을 한 것”이라며 “정관 개정은 이사회에서 이미 통과된 일이며, 총회의 경우 정원의 2분의 1만 참석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20일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에게 입장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고, 결과에 따라 법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현대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 장 광주 서구 서향2길3(서향동)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